

## < 신도 버린 사람들(Untouchables) >

### ○ 책 소개

- 저자 : 나렌드라 자다브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제학 박사, IMF 자문관, 인도중앙은행 수석 경제보좌관, 인도 최상위 대학인 푸네대학 총장)  
인도 불가촉천민(달리트) 출신임에도 국제적 명성을 지닌 경제학자로 성장, 태어난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인도의 절대적 신분제도를 무너뜨린 실제 사례
- 출판사 : 김영사
- 출판년도 : 2007. 6. 출판
- 옮긴이 : 강수정(연세대 졸, 전문번역가)

### ○ 주요 내용

- 인도 인구는 세계 인구의 16%, 인도 인구의 16%인 1억 6,500만명이 불가촉천민(달리트), 힌두교에서는 신이 카스트제도를 만들었다고 함,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진 힌두경전 '리그베다'에서 태초에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는 거대한 신 '푸루샤'가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창조하였는데, 푸루샤의 입은 사제인 '브라만', 팔은 군인계층 '크샤트리아', 허벅지는 상인계급인 '바이샤', 두 발은 노예인 '수드라' 계층 탄생, 이에 들지못한 아웃카스트로 불리는 '불가촉천민(달리트, 접촉할 수 없는 천민들)'이 있음. '마누법전'에는 수드라와 불가촉천민이 개와 당나귀 이외의 재산을 갖지 못하며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카스트는 인생의 행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어디서 물을 마시고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를 결정, 개인이 학자가 될 것인지 거리의 청소부가 될 것인지도 카스트로 결정
- 불가촉천민은 카르마(업, 운명)의 논리에 세뇌되어 살아왔음, 미천한 일을 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 믿음, 천하게 태어나 한평생 변소청소부로 살아가는 그들은 '전생에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거야'라고 생각
-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대 사례, 기원전 5세기경 석가모니, 카스트 제도에 의문을 품은 그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후 6세기까지 융성, 기원후 7세기경 쇠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종교로서 입지 상실, 카스트 제도가 존속
- 19세기 초, 인도를 통치한 영국은 교육을 모든 계층에 개방, 상층 카스트 전유물이었던 교육이 하층 카스트에게 다다름(식민지의 또다른 의미)
- 1950. 1. 공화국을 선포한 인도헌법은 불가촉천민의 폐지를 선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분과 종교를 근거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문화, 불가촉천민들의 침이 땅을 더럽힌다며 목에 오지그릇 걸고 다님, 더러운 자신의 발자국을 지우려고 궁둥이에 빗자루를 매달고 다님
- 마하라슈트라 주(인도 서해안에 위치), 진보적 성향의 지방, 주도 뭄바이(과거 뽀베이),

불가촉천민 중에는 '마하르' 집단의 수가 가장 많음, 마하르가 수행하는 임무는 '비천한 마을 하인의 잡무', 즉 '마을의 야경꾼이자 보초이며 대소사의 살아있는 알림판'이었음, 마을의 언쟁을 중재하고 마을을 지키면서 부고를 알리고 다른 마을에 서신을 전달하며 화장에 필요한 장작을 나르고 마을의 담장을 손보는 일, 이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약간의 토지를 불하받고 곡물과 고기, 죽은 가축의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1891. 태어나 인도의 평등혁명을 이끈 사람, 마하르 집단 출신, 일명 '바바사헤브'로 알려진,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박사, 미국 콜롬비아 대학 철학박사(1917), 런던정경대학 경제학박사, 런던 그레이법학원 법학석사(1923), 달리트를 위한 최초의 신문 창간, 1935. "힌두교도로 죽지 않겠다"고 선언, 1956. 50만에 가까운 달리트들을 이끌고 불교로 개종, 달리트들의 정당 '독립노동당' 창당, 마하트마 간디와도 대립각 세울 때 있었음, 인도 공화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인도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관직과 교육기관의 일정비율을 달리트에 특별할당, 의회에 달리트의 의석을 인구비례로 할당, 1991년 경제 위기에 공공부문에 국한된 달리트에 대한 특별할당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요구

### - 책 구성

저자 나렌드라 자디브의 아버지 '다무'와 어머니 '소누'가 들려준 이야기로 구성, 결혼은 집안 어른끼리 정함(다무와 소누의 결혼도 두사람이 얼굴을 못 본 채 결정), 1928년 전후한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없어 매우 고생,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다무'는 철도회사에 취직하여 정식 직원이 되면서 안정적인 생활, '소누'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계에 경제적 도움

- 마하르의 '힌두교 사원 입장', '저수지 물 사용'을 위한 투쟁에 참여, 바바사헤브와 함께 투쟁, '교육하고, 단합하고, 쫓기하라'가 구호, '신은 모두의 것이다. 힌두교도는 누구나 사원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무는 한때 너무 상황이 어려워 강에 몸을 던지려고 다리 끝의 송전탑 위에 올라감, 그 때 자주색 옷을 입은 성자가 나타나(환영처럼),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내려오게, 자네는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일단 내려와서 차분히 생각해 보게나, 지금의 절망은 잠깐이고, 곧 지나갈 거야. 어서 내려오게' 다시 내려오다.

기계공장에 취직, 엄지손가락 기계에 끼여 잃음, 포트 트러스트에 취직(다무의 어머니가 돈을 주고 취직), 안정된 생활, 결혼한지 12년만에 아이 가짐, 아들 넷과 딸 둘을 3년 터울로 낳음

- 1956. 10. 14. 나그푸르, 바바사헤브 불교로 개종, 50만 달리트와 함께,

이제 자신이 불교도로 다시 태어났으며, 폭압적인 힌두교의 굴레를 벗어났음을 선언, 그는 부처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걷겠노라고 맹세, 더 이상 힌두전통에 따라 부모님의 기일을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 이제부터는 지혜와 바른 행실,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선언, 바바사헤브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한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임. 우리는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바사헤브는 보다는 나온 삶으로, 카스트가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줄 우리의 지도자이자 구원자였다.

- 나렌드라 자다브 : 나는 불교신자다. 나는 불교가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가르쳐주는 종교라고 생각하며, 설사 내가 불교신자가 아니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불교의 개념을 따랐을 것이다. 내가 상층카스트 힌두교도 아내를 맞이할 때도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의식에 따라 혼례를 올렸다. 하지만 힌두의 여러 신들을 좋아한다는 것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힌두교의 신들은 너무나 멋진 상징이다. 특히 가네샤 신(지혜와 성공의 신)을 좋아한다.

## <한번은 한문공부>

- 문법이 잡히면 고전이 보인다 -

### □ 책 소개

- 저자 : 정춘수,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졸업(학사, 석사),  
한문교양서 저술가('한자오디세이', '논어를 읽기 전에' 등)
- 2018. 4. 20. 초판 1쇄 발행, 2018. 6. 28. 초판 2쇄 발행
- 출판사 : 부키

### □ 쉬운글자, 난해한 해석(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 信信信也 疑疑亦信也 <순자>
- 豕人立而啼 <춘추좌전>
- 欲富而家 先富而國 <한비자>
-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논어>
- 此木以不材得 終基千年 <장자>

### □ 주요내용(극히 일부만 소개)

- 한문은 고립어이다. 개개 낱말이 저마다 고립되어 있어서 다른 낱말의 영향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우리말은 교착어로 조사나 어미 따위를 단어의 기본형에 교착해서 써야 온전하게 말이 되는 언어이다. 한문은, 우리 말이라면 조사나 어미로 구별되는 문법적 관계나 의미 차이를 어순에 의하여 나타낸다.

君君, 臣臣, 父父, 子子 <논어>

人人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 <맹자>

- 之는 한문에서 사용빈도가 대단히 높은 한자이다. '고려사'에서는 모든 한자를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할 정도이다. 이 之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동사로 쓸 때는 '가다'라는 뜻이다.

沛公引兵之薛 패공이 병사를 이끌고 설로 갔다. <자치통감>

② 대명사로 쓸 때는 '그', '그것'이란 뜻이다.

王見之曰 왕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맹자>

③ 조사로 쓸 때는 ~의(한), ~을(를), ~이(가) 등으로 해석된다.

民神之主也 백성이 신들의 주인이다. <춘추좌전>

天乎, 予之無罪也 하늘이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기>

- 한문은 단음절어이다. 한 단어가 1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이다. 현대 중국어는 2음절 단어 비중이 80퍼센트에 달한다고 하니 단음절어는 고대 한문의 독특한 특징이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에드윈 폴리블랭크, '고전 중국어문법 강의'
-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기원', '한자 백가지 이야기'